

K O R E A   M A R I T I M E   I N S T I T U T E

해양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

● Contents

□ Grup TCB, 과테말라 컨테이너 터미널에 2억 5천만 달러 투자	2
□ 10억 달러 규모의 로테르담항 신규 유류터미널 건설, 내년도 착공	3
□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, 주요 항만 2개의 99년 운영권 민간에 매각	4
□ 브라질 Itaqui항, 향후 20년간 31억 달러 투자로 처리 물동량 10배 확대	5

## □ Grup TCB, 과테말라 컨테이너 터미널에 2억 5천만 달러 투자

- 바르셀로나에 본사를 둔 스페인 항만운영사인 Grup TCB는 Quetzal 컨테이너 터미널(TCQ, Terminal de Contenedores de Quetzal) 운영을 위한 25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
  - Quetzal 컨테이너 터미널은 과테말라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있음
  - Grup TCB는 본 터미널을 운영하기 위해 연장 가능한 25년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며, 터미널 인프라에 2억 5천만 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
- Quetzal 컨테이너 터미널은 2단계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음
  - 1단계 공사에서는 1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수심 12.5m, 선석길이 300m, 야적장 13ha 부두를 건설할 것임
  - 2단계 공사에서는 선석길이는 540m, 야적장은 21ha로 확장할 것이며, 수심은 14m가 될 것임
- Quetzal 컨테이너 터미널에는 4대의 STS(Ship-to-Shore) 갠트리 크레인, 1대의 모바일 크레인, 12대의 RTGC(Rubber-Tyred Gantry Crane)가 설치될 것임
- Quetzal 컨테이너 터미널(TCQ) 이사인 Juan Jose Suarez는 Quetzal항의 처리능력이 현저하게 증가하여, 2012년 상반기 150,800TEU를 처리했다고 말함
- Quetzal 컨테이너 터미널은 동아시아와 미국 서부해안간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인 위치에 입지해 있다고 Grup TCB는 이번 수요일날(4월 10일) 밝힘

< Quetzal항 위치 >



< Quetzal 컨테이너 터미널 전경 >



자료 : [www.cia.gov/](http://www.cia.gov/) [www.longshoreshippingnews.com](http://www.longshoreshippingnews.com)    자료 : [www.portfinanceinternational.com](http://www.portfinanceinternational.com)

자료 : [www.portfinanceinternational.com](http://www.portfinanceinternational.com), 2013.4.10.

이언경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919, [eklee@kmi.re.kr](mailto:eklee@kmi.re.kr))

## □ 10억 달러 규모의 로테르담항 신규 유류터미널 건설, 내년도 착공

- 로테르담 신규 유류터미널 Terminal Europoort West(TEW), 2014년 착공 및 2016년 운영 시작 예정
  - 2013년 4월 5일, 스탠다트(Shtandart)사<sup>1)</sup>와 로테르담 항만공사는 신규 터미널 건설을 위한 부지 이전 계약에 서명함<sup>2)</sup>
  - 총 투자액은 10억 달러 규모이며 로테르담 항만공사가 바지선 부두 및 탱커선 정박시설 등 하부 시설을, 스탠다트는 터미널, 탱크 및 그 외 상부시설의 건설을 담당할 것임
- TEW는 유로포트(Europoort) 서측 미개발지역 두 곳에 건설될 것이며 총 저장능력은 320만 m<sup>3</sup>에 이를 것임
  - 곰의 머리(Bear's Head)로 알려진 북쪽 지역에는 230만 m<sup>3</sup>의 저장능력을 갖춘 원유전용 탱크 시설이 건설되며,
  - 디텔하벤(Dintelhaven)에 위치한 남측 지역은 90만 m<sup>3</sup>의 원유, 경유 및 중유 등의 저장능력을 갖출 것임
- TEW는 러시아 우랄원유를 주로 처리하는 개방형 허브 터미널로 운영 예정
  - 스탠다트 투자사인 슈마그룹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원유수출항인 발틱해의 프리모르스크(Primorsk)항을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, 향후 프리모르스크항과 로테르담항 간 오일탱커선의 셔틀서비스를 매일 운영할 예정임
  - 연중 지속적인 운반이 가능한 셔틀서비스의 운영을 위해, 핀란드만(Finnish Gulf)의 얼음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발틱맥스(Balticmax) 탱커선들이 건조될 것임
  - 이외에도 바지선부터 초대형 유조선까지 800여척의 선박이 TEW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
  - 현재 로테르담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30% 및 유류제품의 45%가 러시아에서 수출되고 있음

자료 : [www.portfinanceinternational.com/](http://www.portfinanceinternational.com/) [www.dutchdailynews.com/](http://www.dutchdailynews.com/), 2013.4.9.

김홍매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28, [hisgrace@kmi.re.kr](mailto:hisgrace@kmi.re.kr))

1) 스탠다트는 러시아 지주회사인 슈마(Summa)그룹과 네덜란드 탱크터미널 운영사인 VTTI가 설립한 합작투자사로, 슈마그룹과 VTTI는 각각 75%와 25%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

2) 당초 스탠다트 유류터미널 건설계획은 2011년 발표되었으나 투자에 필요한 일부 승인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어 연기되었으며, 이후 러시아 부수상과 네덜란드 경제성 장관 회담을 통해 투자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음



## □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, 주요 항만 2개의 99년 운영권 민간에 매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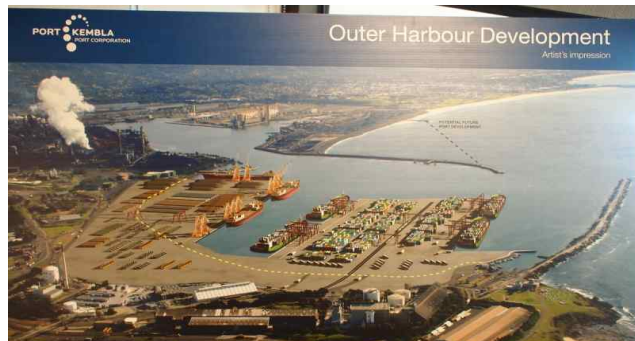
-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(NSW) 주정부는 주 소유의 보타니항과 캠블라항의 운영권을 99년간 NSW 항만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결정
  - 2011년 9월, 보타니항과 캠블라항의 운영권을 민간에게 99년간 넘긴다고 발표한 이후<sup>1)</sup>, 최근 6개월간의 입찰과정을 통해 NSW 항만 컨소시엄<sup>2)</sup>에게 50.7억 달러<sup>3)</sup>에 매각하기로 결정
  - 주 정부의 순이익은 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NSW 주 사상 가장 큰 거래임
  - 99년 이후에는 해당 자신은 추가적인 협의에 따라 다시 공공소유로 돌아올 것임
- 금번 매각을 통해 NSW주 정부는 그동안 지연되어 오던 사회간접시설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 확보
  - 현재 NSW 주의 계획된 NSW 사회기반시설 프로그램의 수행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
  - 보타니항과 캠블라항 매각을 통해 마련된 자원 중 43억 달러는 약 18억 달러 규모의 M4-보타니항 간 WesConnex 자동차 도로건설을 포함한 신규 사회간접시설 건설에 투입될 것임
- NSW 주정부는 항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은 지속적으로 수행
  - 주정부는 항장 및 도선 기능을 포함한 해상안전 및 보안기능 수행은 물론 항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것임
  - 시드니항만회사와 캠블라항만회사 직원 중 일부는 NSW 항만 컨소시엄으로 이전될 것임

< 보타니항 전경 >



자료 : 보타니항 제공

< 캠블라항 조감도 >



자료 : 캠블라항 제공

자료 : www.porttechnology.org, 2013.4.15/ www.theaustralian.com.au, 2013.4.12.

전형모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17, hmjeon@kmi.re.kr)

1) KMI 국제물류 위클리 118호 참조

2) NSW 항만 컨소시엄은 Industry Funds Management (IFM), Australian Super and Qsuper 등 호주기업이 지분 80%를, 아부다비 투자청 자회사인 Tawreed Investments가 지분 20%를 투자하여 구성(IFM은 이전 브리즈번항 매각에도 참여)

3) 보타니항의 운영권이 43.1억 달러, 캠블라항 운영권이 7.6억 달러

## □ 브라질 Itaqui항, 향후 20년간 31억 달러 투자로 처리 물동량 10배 확대

- 브라질 주요 항만 물동량 처리 난항으로 수출입에 병목현상 발생
  - 브라질 주요 항만은 시설 노후화와 공간부족 문제를 갖고 있으며, 트럭이나 수로 및 철도 등의 연결체계 미비로 수송에 어려움을 겪음
  - 브라질 항만이 전 세계 항만 중에 가장 느리고 비용이 높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번 Itaqui항 투자 소식은 브라질과 교역하는 국가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
- 마라냥주 항만운영공사(EMAP)는 20년간 31억 달러를 투자해 Itaqui항의 처리가능한 물동량을 10배로 확대하기로 발표
  - Itaqui항은 브라질 북동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브라질 남부 항만에 비해 유럽과 미국에 가장 가까운 곳으로 작년 한 해 동안 1,57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함
  - 항만 확장에는 20년간 총 31억 3천만 달러가 투입되며 이중 약 8억 달러는 2016년까지 투자 될 계획으로, 항만 운영사인 EMAP의 Luiz Carlos 대표에 따르면 이번 확장을 통해 20년 이후에는 연간 1억 5천만 톤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  - Itaqui항은 이번 투자를 통해 항만 준설 및 현재 사용 중인 부두를 재단장하고 16개의 선석을 추가로 건설하여 유류, 알루미늄, 철, 대두, 일반화물 및 컨테이너 화물 등의 물동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

< Itaqui항 위치 >



자료 : www.intermarineusa.com

< Itaqui항 전경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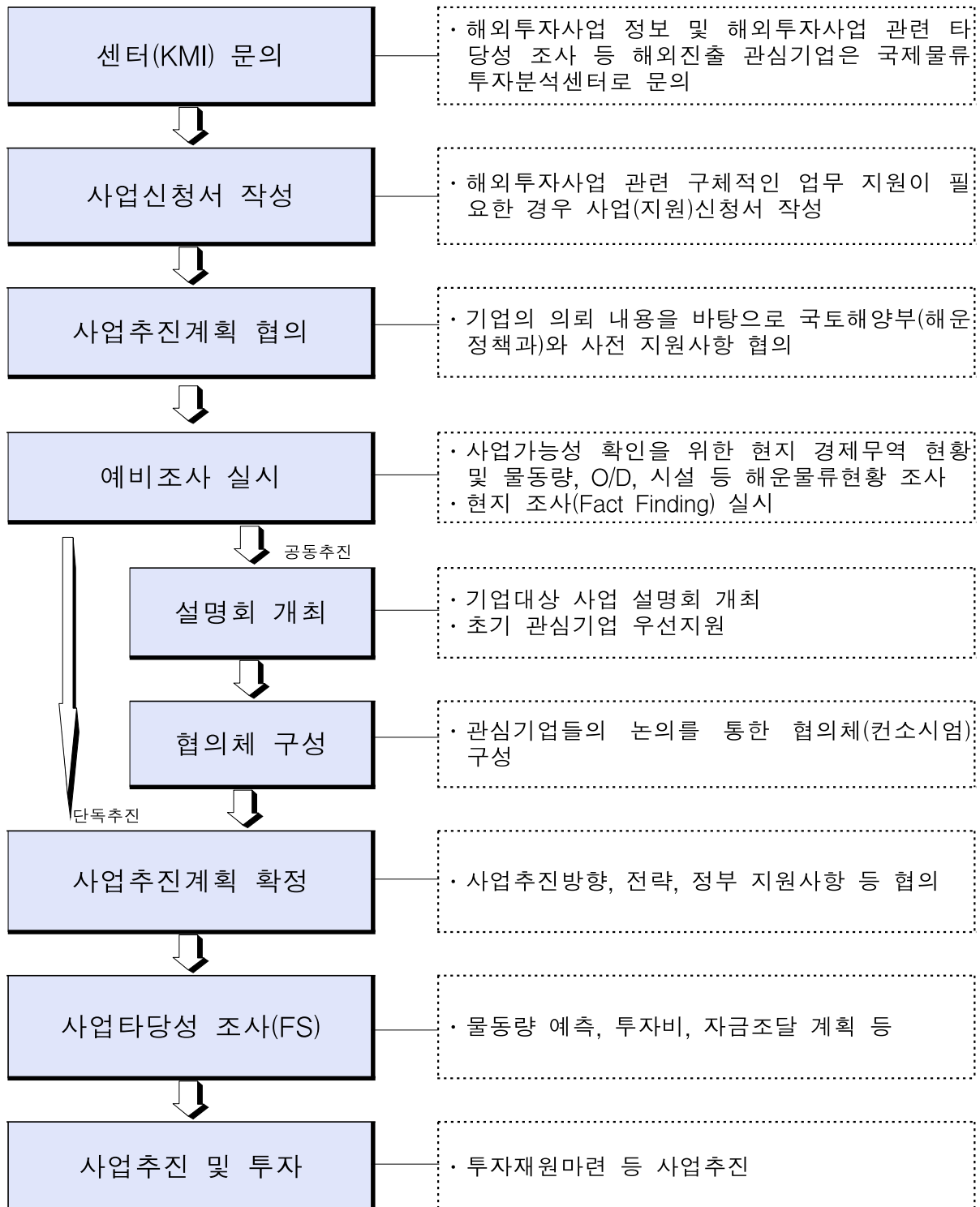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www.blogdorogerio.com.br

자료 : www.porttechnology.org, 2013.4.8/ www.theepochtimes.com, 2013.4.1.

이홍원 연구원 (☎ 02-2105-2897, hongwon@kmi.re.kr)

## 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\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